‘어벤져스4’ 돌풍… 개봉 5일만에 600만명 돌파

첫날 133만명 개봉일 최다… 광주 4일만에 15만273명
거듭되는 반전 긴장감 폭발… 흥행 속 스크린 독점 논란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12세 관람가)이 국내 영화 흥행사를 다시 쓰고 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는 개봉한 지 닷새째인 이날 총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전날인 27일 하루 148만9083명을 불러모으며 총 관객은 470만7423명을 기록했다. 이날 기록은 지난해 8월4일 ‘신과함께-인과연’이 기록한 역대 하루 최다 관객수(146만6225명)를 뛰어넘은 수치다. 관객수 1700만명으로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명량’이 개봉 5일째 세운 476만 관객 기록(당일 125만명)도 훌쩍 넘었다.

주말 극장가 승자는 단연 ‘어벤져스4’였다. ‘어벤져스4’는 지난 24일 개봉과 동시에 134만명을 동원한 데 이어 이틀째 누적 200만명, 사흘째 누적 30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흥행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벤져스4’는 개봉한 24일 총 133만8781명을 불러모아 개봉일 최다관객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또 개봉한 지 4시간 30분 만에 역대 최단기간 100만 관객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121개)·전남(99개) 상영관에는 27일까지 각각 15만273명, 9만2743명의 관객이 몰렸다.

◇굿바이 어벤져스…10년 장정 마무리

영화가 개봉한 지난 24일 오후 찾은 롯데시네마 광주광산점은 평일임에도 100석이 넘는 객석이 앞줄부터 가득 메워졌다. 상영 전부터 관객들은 그동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마블 시리즈)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련 기사를 훑어보며 ‘어벤져스’ 시리즈 10년 대장정의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어벤져스4’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22번째 작품으로, ‘인피니티 워’ 이후 절반만 살아남은 지구에서 마지막 희망이 된 어벤져스와 악당 타노스 간 최후의 전쟁을 그린다. 원년 멤버인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르(크리스 헴스워스), 헐크(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등은 물론 앤트맨(폴 러드), 캡틴 마블(브리 라슨) 등의 활약상이 스크린을 채운다.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구성 덕에 3시간 1분의 러닝타임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관객들은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상영 1시간 전부터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어벤져스 4 후기’를 SNS 등을 통해 나눴다. 이전의 마블 시리즈를 제대로 섭렵하지 않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영화는 각 캐릭터의 특성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전개를 보이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려 지루할 틈이 없었다. 마블 시리즈하면 떠오르는 쿠키 영상은 이번에는 없다.

◇전무후무 흥행기록…스크린 독점 문제도

‘어벤져스4’의 스크린 독점은 불 보듯 확연하게 나타났다. 스크린 수는 개봉일 2760개에서 주말 2832개로 늘었고 좌석판매율은 69.5%를 나타냈다. 실시간 예매율은 28일 오후 4시 현재 93.7%로, 현재 79만명의 예매 고객이 관람을 대기 중이다.

전체 상영횟수에서 ‘어벤져스4’의 상영 비중을 말하는 상영 점유율은 79.8%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이 영화 상영 횟수는 1만3276회에 달했다. ‘어벤져스’(2012)로 시작한 시리즈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누적 관객 수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CGV에 따르면 CGV 관객 기준 20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5%로 그 뒤를 이었다.

‘어벤져스4’의 독주에 극장들은 모처럼 특수를 맞았지만 국내 영화업계는 울상이다. ‘어벤져스4’ 개봉 전 극장가에는 ‘생일’ ‘요로나의 저주’ ‘미성년’ 등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골고루 걸렸다. 그러나 관객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생일’은 무려 3주 동안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지만, 총관객 수는 115만7000명으로 ‘어벤져스4’ 하루 관객 수에도 못 미친다.

CGV 광주터미널점은 28일 4DX, IMAX 등 10개 상영관을 확보해 ‘어벤져스4’를 심야 시간대까지 상영하고 있지만 ‘하드스톤’ ‘미성년’ ‘메니페스토’ 등은 하루 1회 상영에 그치고 있으며 ‘생일’은 아예 상영하지 않았다. ‘어벤져스4’에 대항할 영화는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 뿐이라는 말도 항간에 떠돌 정도다.

‘어벤져스4’의 개봉 전후로 스크린 독점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영화 상영과 관객의 문화향유권 차원에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흔적

‘프랑스에서 온 여행자 지넥’
5월31일까지 제이콥하우스

‘길들여진 새’

프랑스인 지넥(Zyneck) 부부는 지난해 가을 처음 광주를 방문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5·18 기록관 등 오월 항쟁 현장을 둘러봤다. 또 운주사 템플 스테이에 참여해 한국 불교 문화도 체험했다.

그들은 광주에 머무는 동안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함께 광주문화재단 인근에 위치한 카페형 갤러리 ‘제이콥하우스 갤러리’(광주시 남구 구성로 100)를 찾았다. 따뜻한 분위기와 전시회가 열리는 등 미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공간에 매력을 느낀 그는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제 전시도 여기서 열 수 있을까요?”

주인장 조경현씨가 흔쾌히 허락했고, 프랑스로 돌아간 지젝은 지난 4월 초 작품을 보내왔다. 그는 오는 5월31일까지 제이콥하우스에서 열리는 사진전 ‘모래 위에 쓴 편지 흔적-프랑스에서 온 여행자 지넥 이야기’전으로 광주 시민들과 만난다.

보르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넥은 보르도 국립예술학교를 졸업했으며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프랑스를 비롯해 인도, 스페인 등 전세계에서 200여차례 넘는 개인·그룹전을 가졌다. 또 30여년전부터 ‘장미나무’ 아뜰리에를 개소,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들과 함께 프로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모래 예술 작품을 전시중이다. 지넥은 전 세계를 여행다니며 각국의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린다. 모래 사장에 담긴 그림과 배경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컴퓨터로 색감을 다양화하는 등 다시 작업해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가 모래에 그린 작품은 위트가 넘치고 유쾌하다. 모래사장을 지나간 차의 타이어 자국과 인물의 그림을 절묘하게 배치해 눈길을 끌며 발랄한 소녀의 모습도 보인다. 고층빌딩과 부산 해운대의 하늘, 모래에 그린 거대한 새가 어우러진 작품도 인상적이며 낡은 철조망 등 바닷가에서 구한 소품들도 근사한 소재가 된다. 이번 전시작들엔 그리스, 스페인의 바닷가 등이 담겼다.

작가 블로그 http://newfreeart.over-blog.com. 일요일 휴무. 월~토요일 오전 11시~밤 11시. 문의 010-2633-890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

‘2019 다므기-Together’
5월3~9일 광주비엔날레관

지난해 열렸던 티셔츠전

‘다므기’는 순수 한국말로 ‘함께’, ‘더불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 예술계에서는 ‘다므기-Together’를 타이틀로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하는 전시를 열어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19 Together’ 전시가 오는 5월3일부터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장과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울타리-그 안에 어울림을 담다’로 정했다.

2019 Together 조직위원회(추진위원장 조영대·정한울, 집행위원장 황인원)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한국화·수채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장르에서 국내외 장애인·비장애인 작가 160여명이 참여하며 아라이 요시노리, 카쿠치 마사코 등 일본 작가들도 작품을 선보인다.

‘Together’전은 본 행사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이벤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조각보 잇기와 티셔츠전이다. (사)한국BBS광주전남연맹(회장 김영수)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조각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꿈 2019 다므기’는 광주 대촌중학교, 담양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교안·밖 청소년들이 제작한 미술작품 500점을 조각보로 제작해 잇는 행사다.

광주이주여성연합회(회장 김분옥)(사)소화자매원, 무장애북구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광주시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도움을 받아 이주민 자녀들과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꿈나무 빨래-티셔츠 행사’는 올해 규모가 더 커졌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티셔츠로 만들어 전시하는 이벤트에는 모두 850점이 내걸린다. 특히 올해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작품도 티셔츠로 제작됐다. 지난해 첫 행사를 치르며 제작한 티셔츠를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전달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캄보디아 돈보스코 품처레 스쿨’ 어린이들이 미술작품을 보내와 티셔츠로 제작했다.

오픈식은 오는 5월 3일 오후 5시 열리며 4시30분부터 식전 공연으로 놀이패 만원의 전통음악, 전슬기예화 무용학원의 전통무용, 중국 전통춤과 몽골 어린이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다도체험도 펼쳐진다. 문의 062-608-4114.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X 핀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